

인사말

불교가 이 땅에 전해진 이후, 유구한 역사속에서 불교의 유산들은 민족의 삶과 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월이 흐를수록 소중함이 더해져 어느 것 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 없으며, 현시대에도 생생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정신문화의 발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들이 도난으로 인해 끔찍하게 훼손되고 방치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종단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발간하여 문화재 보호와 계승에 대한 나름의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문화재청 등, 유관 기관의 도움으로 소중한 문화재를 제자리로 찾아오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청과 문화재청,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이 힘을 모아 회수해 온 총 31건 48점의 불교문화재를 공개합니다. 이 문화재들은 조각, 회화, 공예 등 불교미술 각 분야의 정수를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들이며, 동시에 사찰에서 유구한 세월을 걸쳐 민중의 마음을 너그럽게 감싸왔던 귀중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의 의미를 통해 문화재 도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문화재의 도난 예방 및 회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 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경찰청,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식”을 맺은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정부 각 기관의 노력과 협조를 통해 도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도난문화재 회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불교의 정보가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불교문화재가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조께서 물려주신 유산에 담긴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